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

인도 : 이재훈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626. 만민들이 다 경배하라(x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하여라	다 함께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위태로운 삶을 견뎌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롭고 쓸쓸할 땐 온기가 되어 주셨고 욕망에 사로잡혔을 땐 따끔한 회초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배워 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은 성령강림절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진리의 영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인도자 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때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하늘 백성의 신분을 잊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 때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바로 서게 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인내를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위로의 말씀 창 28:15	인도자
교 독 문 135. 성령 강림 (1)	다 함께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찬 양 182.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다 함께
성경봉독 행 9:10~19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 독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 께

특 송	살아갈 날들을 위해	장성호 교우
말 씬	내가 택한 내 그릇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성찬식		다 함께
찬 양	454. 주와 같이 되기를	다 함께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평화의 인사		다 함께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일하는 방식을 배우십시오. 주님은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눈뜬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 합 께 : 아멘. 주님,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진리의 영과 함께 나뉘고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축 복		김기석 목사

다음주

설교

성경봉독

인도

김기석

인도자

이재훈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청파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파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 교회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파교회)

< 2021년 성령강림절 성찬식 순서 >

- 성찬식이 시작되면 빵과 포도주를 덮고 있는 보를 옆으로 치웁니다 -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집례자 :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처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기 원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회 중 :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만찬 기도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 마음속에 보내시사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치고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회 중 :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생의 상속자를 따라 승리하며 살게 하였습니다.

다함께 : 그러하기에 이 땅 위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성찬 제정사 / 집례자

집례자 :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 / 집례자

집례자 :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여기에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회 중 :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어 주십시오.

영광 찬양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회 중 :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회 중 : 서로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 중 :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회 중 : 아멘.

평화의 인사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 : 또한 목사님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회 중 :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주위 성도들과 인사를 나눔)

분병례 / 집례자

집례자 :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회 중 : 아멘.

집례자 :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회 중 : 아멘.

분급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이는 당신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회 중 : 아멘. (각자 빵을 드십시오)

집례자 : 이는 당신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회 중 : 아멘. (각자 포도주를 드십시오)

- 이후에 빈 잔과 접시를 보로 덮습니다 -

성찬 후 감사기도 / 다함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